

애플, 시총 3兆달러 시대 ‘활짝’... 테슬라 제치고 순매수 1위

해외주식 Click

美 기술주·배당주 두각

애플, 자사주 매입·배당금 지급
장중 주가 182.88달러까지 상승
배당락일 앞두고 ETF, 리츠 관심 ↑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기술주’ 사랑은 여전했다. 또 배당락일을 앞두고 미국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가 새롭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했다. 배당락일 3거래일 전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2월 27일~1월 2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 1위 종목은 ‘애플’이다. 6주 연속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제쳤다. 이 기간 5345만달러를 사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 순위 | 종목명 | 순매수 금액 |
|----|--|--------|
| 1 | 애플 | 5345만 |
| 2 | 마이크로소프트 | 3966만 |
| 3 | 엔비디아 | 2718만 |
| 4 | 노바백스 | 2702만 |
| 5 | VANGUARD SP 500 ETF | 2545만 |
| 6 | 테슬라 | 2215만 |
| 7 | 어도비 | 1896만 |
| 8 |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배터리 ETF | 1433만 |
| 9 | ISHARES PREFERRED AND INCOME SECURITIES ETF(PFF) | 984만 |
| 10 | 이노베이트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스(IIPR) | 948만 |

기간 : 2021년 12월 27일~ 2022년 1월 2일, 단위 :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들었다.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4.44달러(2.5%) 오른 182.0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주가가 182.88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넘기도 했다. 애플은 2018년 8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

으며, 2년 만인 2020년 8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3조 달러를 넘어선 것. 855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과 145억달러 규모의 배당금 지급이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애플은 신제품 출시 계획에 비밀을 유지

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이 가까운 미래에 전기 자동차와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매수 2위와 3위 종목은 미국 기술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3966만달러, 2718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지난해 말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성장률이 높은 ETF와 리츠(REITs)에도 자금이 쏠렸다.

배당주 ETF인 밴가드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ETF(VANGUARD S&P 500 ETF·VOO)와 아이셰어즈 프리펠드 앤드 인컴 시큐어리티즈 ETF(ISHARES PREFERRED AND INCOME SECURITIES ETF·PFF)는 각각 순매수 5위와 9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VOO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시장에서 엄선된 50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안정적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꾸준히 편입

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성장률도 5%가 넘는다. PFF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며, 미국의 우량 기업 우선주에 분산투자한다. 배당 수익률은 연평균 4.16%를 기록하고 있다.

순매수 10위에 등장한 이노베이트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스(IIPR)는 마리화나 관련 리츠 상품이다. 같은 기간 948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IIPR은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와 가공 시설을 장기간 임대해준다. 평균 임대 기간이 16.7년으로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 배당수익률은 2.27%이며,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노바백스(2702만달러) ▲테슬라(2215만달러) ▲어도비(1896만달러)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배터리 ETF(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1433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청담·광화문 금융센터 설립

고객자산가 특화 자산관리 서비스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30명 영입

신한금융투자는 5일 고객자산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특화시킨 청담금융센터와 광화문금융센터 2곳을 신규 설립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담과 광화문 금융센터는 강북과 강남의 요지에 위치해 고객자산가를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두 센터는 최근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신한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영입해 오픈하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고객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특화점포 오픈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고객자산 관리를 위해 왔던 씨티은행 자산관리 최고전문가(마스터PB) 2명과 10억원 이상 자산 고객을 관리해 왔던 최우수 자산관



5일 신한금융투자 청담 및 광화문 금융센터 PB들이 센터 오픈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리 전문가(CPC PB) 10명 등을 포함해 총 30명의 씨티은행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국내 고객자산관리의 최대 경합지역인 청담금융센터에는 국내 프라이빗뱅크(PB) 1세대이자 PB 교육, 투자관련 리서치 및 상품 개발 등을 두루 거쳐 자산관리 전문가로 통하는 영정주 상무를 영입했다. 영 상무는 최근까지 씨티은행 최대 규모 자산관리(WM)서비스 영

업점인 ‘청담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온 자산관리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강북에 위치한 광화문금융센터에는 과거 씨티은행에 3명만 있었던 자산관리 최고전문가(마스터 PB) 중 2명이 영입돼 전문 인력들이 고객중심의 금융상품 판매, 기업자금운영, 상속증여, 세무상담 등 토탈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DL이앤씨, 올해 전국 2만여 세대 공급

원주, 옥정, 동탄 등 주요지역 분양

〈2022년 DL이앤씨 주요 프로젝트〉

| 단지명 | 세대수 (일반분양) | 분양시기 |
|------------------|---------------|------|
|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 572 | 2월 |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 477 | 3월 |
| 양주 옥정 | 657 | 4월 |
| 대구 대명 | 1055 (676) | 7월 |
| 용인 죽전 | 600 | 9월 |
| 동탄2신도시 A56BL | 560 | 12월 |

*단지명과 분양시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DL이앤씨

DL이앤씨(디엘이앤씨)가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2년 전국 주요도시에서 2만 3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오는 2월 강원도 원주에서 572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시작으로 3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 양주 옥정, 대구 대명, 용인 죽전, 동탄2신도시 A56블록 등 관심도가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월 부산에서 선보일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는 에코델타시티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19층, 15개동, 전용면적 68~84㎡, 총 953세대 규모(당사지분 기준 477세대)로 조성된다.

4월에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지상 최대 27층, 14개동, 총 938세대(당사 지분 기준 657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옥정신도시는 수도권 광

역급행철도(GTX)-C 및 7호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집의 다양한 기능을 확장시킨 것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과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최고의 주거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KB자산운용 ‘KB타겟리턴OCIO펀드’ 설정액 2000억 돌파

변동성 장세에도 꾸준한 성과 도출

KB자산운용은 ‘KB타겟리턴OCIO펀드’가 설정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변동성 장세에도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유입이 지속된 결과로 업계 1위 규모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이현승 대표 취임 후 연금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KB온국민TDF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규모를 3600억원에서 1조원

까지 늘렸고, ‘KB다이나믹TDF’, ‘KB온국민평생소득TIF’, ‘KB타겟리턴OCIO펀드’ 등 연금펀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KB타겟리턴OCIO펀드는 연기금 및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KB자산운용만의 특화된 ‘OCIO 자산배분’ 운용 프로세스를 접목시켜 만든 펀드다. 2020년 12월 31일 안정형 펀드가 설정됐고, 2021년 1월 25일 성장형 펀드가 추가로 설정됐다.

‘KB타겟리턴OCIO’시리즈의 안정형 펀드와 성장형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각 4%, 5%로 개별 목표수익률(Target Return)에 따라 전 세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분산투자한다.

퇴직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변동성을 줄여 운용했음에도 지난 1년 운용성과는 매우 우수하다. 운용 기간 1년이 경과한 안정형 펀드는 연간 8.12%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한달 늦게 출시한 성장형 펀드 역시 6.37%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목표수익률 이상의 초과 성과를 기록 중이다. /박미경 기자

금융투자교육원

‘채권투자 이해’ 교육생 모집

내달 14일 개설, 월·수·금 주3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채권 업무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채권투자 이해(비대면)’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채권투자 이해’는 오는 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2월 14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비대면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성공적인 채권투자전략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특히 현업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채권시장 트렌드부터 투자전략에 이르기까지 채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수강생은 단기간에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6일(18시간)이고, 주 3회(18:00~21:00, 월·수·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은 화상교육을 위한 PC 및 웹캠(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노트북)을 준비해야 한다. 수강신청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